

# 거리두기 2주 연장...설 연휴때 직계가족도 5인 이상 못 모여

### 오는 14일까지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유지

### 설 특별방역도...중대본 "확진자 감소면 1주 뒤 조정"

### 다중시설 9시 이후 영업제한 등 대부분 기존과 동일

### 영화관 좌석 띄워앉기 완화...실내체육 샤워실 이용 허용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설 연휴(2월11~14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다만 1주간 확진자 발생이 지속 감소할 경우 거리두기를 재논의하기로 해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월31일 로 종료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4일 자정까지 2주 연장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은 50인 이상,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과 인원 제한 조치는 유지된다.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 활동은 수도권은 좌석수의

10%, 비수도권은 20% 내에서만 가능하다.

강도대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많은 고신과 논의 끝에 지금은 방역에 힘을 실어야 할 시기라고 결론지었다"며 "자칫 여기서 긴장이 이완되고 본격적인 재확산이 시작된다면 그 여파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조정관은 "아직도 400명대라는 많은 환자 수와 전국적인 발생양상이 지속되는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재확산까지 일어난다면 짧은 시간 내에 수천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대유행으로 번질 위험성이 있다"며 "거리두기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자영업자분들과 국민들께서는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지만 조금만 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공연장·영화관·스키장 등 일부 수칙 조정

정부는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1주 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거리두기 단계, 집합금지, 운영제한에 대한 조정을 1주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까지 전국에 2주간 연장해 개인 간 모임·접촉에 의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이 조치는 설 연휴 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하고 직계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은 협회·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했다.

공연장·영화관의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1.5단계와 2단계 모두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영화관은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 공연장은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를 시행한다. 비수도권 영화관은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 공연장은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를 적용한다.

또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은 샤워실 이용이 금지돼 있었지만 한 칸 띄워서 샤워실 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했다. 탈의실 등 샤워실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다만 이동량 감소를 위한 타 지역과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등은 유지된다.

#### 수도권 2.5단계...노래방 등 9시 이후 운영 제한

수도권의 경우 2.5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의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규정도 이전과 같이 적용된다.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이나 좌석을 한 칸 띄워 매장 좌석을 50%만 활용하되,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1m 거리두기나 칸막이(가림막) 설치 조치를 해야 한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테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발소, 미용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유흥시설 6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홀라텍·헌팅포차·홀담룸)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목욕탕은 시설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

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에서는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기도원·수련원·선교시설 등은 정규 종교 활동 외에 모든 모임과 행사를 열 수 없다. 학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해야 한다. 직장은 은 기관별·부서별로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 등을 실시해야 한다. 민간 기관도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의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실내 또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통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차량 내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수도권 주민들의 타 지역 방문 자제도 권고된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추가로 적용되고 있는 방역 수칙도 유지된다.

5명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된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 이상의 예약과 동반 입장을 할 수 없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할 수 있도록 운영을 제한한다. 또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

김민정기자

## 확진자 노출 뒤 의심증상 보이는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

### "반려동물→사람 전파 증거 없어...막연한 불안감 X"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후 의심 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월31일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로부터 이 같은 내

용의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보고받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최근 한 집단감염 사례 역학조사 결과,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자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되는 사례는 일부 확인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증거는 없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고, 의심 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반려동물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위탁 보호 돌봄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사람과 동물 간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며 "반려동물 소유자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울러 일상생활 속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지낼 때 지켜야 할 예방수칙과 반려동물 소유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경우 반려동물 관리요령 등을 정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서선욱기자

## '오락실·교회·경로미궁' 광주 감염 확산

광주에서 에이스TCS 국제학교, 안디옥 교회에 이어 성인오락실이 새로운 감염원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경로 미궁의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다.

1월31일 광주시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 지역감염자 8명이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1791명으로 증가했다.

이들 확진자는 광주 1784번~1791번으로 분류돼 격리 병상으로 이송됐다.

확진자 8명 중 광주 1784·1785번은 안디옥교회 관련이며, 광주 1787번은 에이스TCS 국제학교발 감염이다.

사흘 만에 33명이 확진된 성인오락실발 관련 감염자도 1명(광주 1788번)이 추가돼 34명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전날 확진됐지만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광주 1768번 발 접촉으로 3명(광주 1789번~1791번)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 서구 주민인 광주 1786번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역학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전남 지역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추가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전남은 광주지역 성인오락실을 이용한 담양 주민(전남 749번) 1명이 전남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 병상으로 이송됐다.

전남 749번은 무증상 상태에서 방역 당국의 연락을 받고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확진돼 전남도 방역 당국이 광주 성인오락실 방문자 확인에 집중하고 있다.

전남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지역 686명, 해외 63명 등 총 749명이다.

최이슬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